

## 노동의 신성함 노래한 교사의 일기

《평균사는 아름답다》 펴낸 최홍이씨

“교육은 가정·학교·사회가 나누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교육적 책임을 학교에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육계 비리가 터지면 사회적인 물매를 때립니다. 누가 교사를 타락시켰습니까. 바로 물매를 때리는 사람들입니다.”

31년 동안 평교사로 교단을 지킨 최홍이 씨(58, 당곡고등학교)는 자신이 살아온 과정과 학교 현장의 단상을 적은 수필 《평균사는 아름답다》(열림원)를 통해 누가 학교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가 묻는다.

검정고시를 거쳐 처음 학교에 발을 들여놓을 때만 해도 그 역시 유혹을 받았다. 이른바 춘지로 대변되는 거래도 들어오고 진급에 대한 욕망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바른 길을 가지고 스스로 다독거렸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학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부정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더욱 실천하지 않는 지식의 무용성을 익히 알고 있던 그는 학교 민주화를 위해 전교조 활동에 참여했다. 건강 문제로 탈퇴한 뒤에는 후원회를 만들어 지원했다. 이후 그는 학교 내부의 개혁을 당차게 실천했다.

“전교조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 내부의 개혁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학교 내부를 황폐화시키면서 개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옳기는 학교마다 학내 민주화의 불씨를



지웠다. 80년대 초반, 그 살벌한 시대에도 그는 용산고등학교에서 ‘평균사회’를 만들었다. 학교장과의 충돌은 당연지사. 한때 그의 이름 앞에 ‘호메이니’란 별명이 붙고, ‘교장하려면 최홍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말이 떠돌 정도였다.

그의 강직함은 노동관에서 비롯됐다. 교단에 서서 고달프게 수업하는 것이 교사로서 가장 떳떳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나이가 들수록 노동의 신성함을 알 수 있는 평교사로 있다는 것이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진급을 생각했으면 행동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았을 겁니다. 교사 스스로 행동하는 지식인상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교육이니 행복합니다.”

그가 학교 내부적인 비판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바른 소리를 서슴없이 들려줄 수 있는 것도 정직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제자인 소설가 신경숙씨가 《외판방》을 통해 그의 인간상을 소개했듯, 그는 바른 행동으로 정직한 교육자상을 보여주고 있다.

“경숙이만 특별히 지도한 것은 아닙니다. 경숙이가 외출 잠듯 소설을 썼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세계 학생은 모두 똑같습니다.”

교단을 지키는 동안 평교사로 남기를 고집할 참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침묵의 발언이기도 하다. 수필은 그런 마음을 다잡기 위해 기록한 일기쯤 되는 셈이다.

— 오완진 기자

## 고구려 벽화가 들려주는 옛 역사 이야기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이야기》 펴낸 전호태씨



고대사에 대한 관심은 종종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치닫는다. 자료도 적고 연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고대 역사가 수메르문명과 맞닿아 있다느니, 이집트문명과 양대문명을 이뤘다느니 황당한 만화적 상상력에까지 휘둘리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전호태 교수(40, 울산대 사학과)의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이야기》(폴빛)는 고대사를, 그것도 환상적으로 윤색되기 좋은 요소들만을 갖춘 고구려사를 다룬다.

“세기말과 지난 1백년 동안 별로 역사적 자부심을 느낄 만한 사건이 없었다는 점, 출판계 불황이 어우러져 역사의식이 없는 고대사 책들이 양산됩니다.”

“동양 최초”, “세계 유일”이라는 선정적인 문구에만 집착하는 메스컴과, 극우민족주의와 결합한 상업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학계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 역사대중서에 관심을 갖게 했다.

극우민족주의의 표상인 한 일간지가 주최한 고구려 고분벽화전시회는 기획에서 전시까지 전문가의 고증이 부족했다. 벽화가 있는 무덤이 잘못 기재되거나 내용이 틀린 것도 많았다.

“고분벽화는 역사의 세세한 부분까지 전해줍니다. 시기가 정확하지 않아 역사를 오도할 수 있는 위험성은 통론으로 접근함으로써 피하려 했습니다.”

고구려의 흥망과 성쇠를 통론적으로 훑고, 각각의 벽화를 통해 고구려인들의 삶, 종교, 신화 등 의식세계와 생활을 살폈다. 놀이로만 알고 있는 ‘씨름’은 각저총 벽화의 새구름무늬를 통해 내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행해지던 장례의식의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반 이상이 사진으로 채워진 이 책의 볼거리는 무엇보다 사진설명. 내용에서 뽑아내지 않고 사진마다 따로 붙였는데, 국립박물관 시절 전시물의 설명을 쓰던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제가 논문을 쓸 때만 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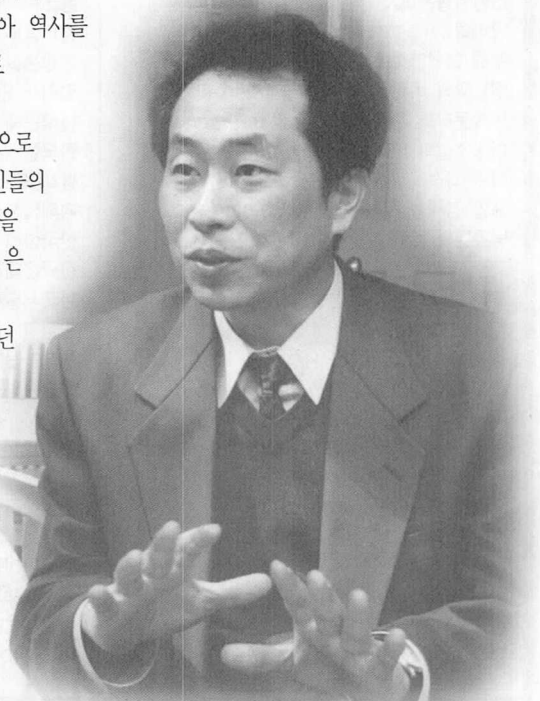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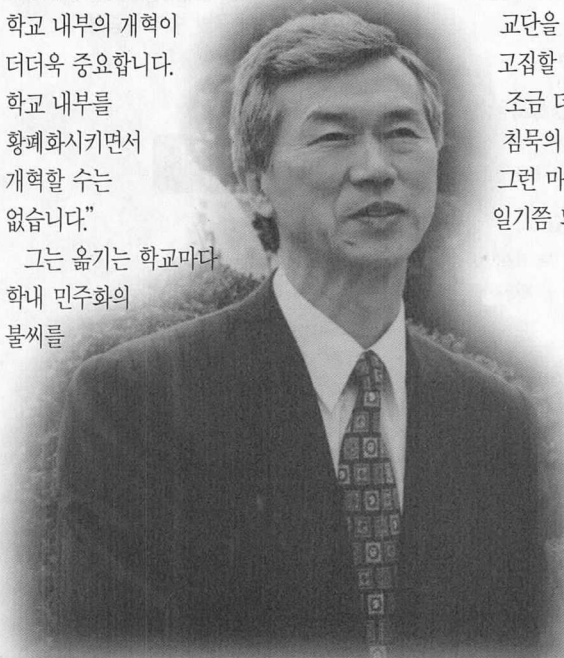
벽화를 통한 역사 공부는 낯설었습니다. 정치·경제적 관심이 높던 때라 저도 본회퍼 등 신학에 빠지고 정치적인 사건에도 연루됐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시절 6년 동안 그림을 그렸던 것, 대학 초반 문학에 빠져들었던 소양이 섞여 결국 고분벽화를 택했다. 벽화를 공부하면서 춤·문학·종교학·음악, 심지어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인문학이 학문의 벽 없이 모든 학문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소 신념에 방증이 됐다.

“요즘은 도교 자생설을 연구하는 중문학자들과도 연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책의 내용을 심화한 책도 준비중입니다.”

학문적 폭이 넓으면서도 깊이를 갖춘 역사비평가가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전호태 교수는 자신들의 말 한마디가 갖는 교육적인 영향력에 많은 지식인들이 책임감을 느끼길 바랐다. 대중역사서에도 학문적 엄밀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이다.

— 이현주 기자



## 고정관념 깬 위대한 발견자들

《의학사의 숨은 이야기》 펴낸 예병일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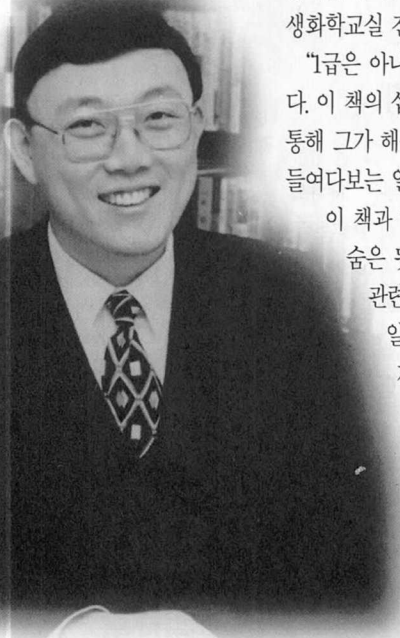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늘 존재하던 그대로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난다. 이렇게 찾아낸 다른 세계는 그간 인류의 역사를 진보시켜 왔다. 의학사도 마찬가지여서 의학의 진보는 기존의 학설에 안주하지 않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간 위대한 발견자들이 이끌어왔다.

최근 출간된 예병일씨(35)의 《의학사의 숨은 이야기》(한울)는 의학사의 위대한 발견자들의 뒷얘기를 사건 위주로 재미있게 엮은 책이다. 이 책에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증세를 지배하던 갈레노스의 학설에 맞서 의학을 과학으로 만든 해부학의 창시자 베살리우스와 혈액순환의 발견자 하베이, 천연두 예방접종법을 발견한 제너, 미생물학의 창시자 파스퇴르 등 의학사의 영웅과 그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겪은 생생적 시행착오의 역사가 담겼다.

“일종의 대중의학서라고 보면 됩니다. 의학의 역사를 다루면서도 각 인물과 관련된 사건을 중심으로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쓰자 노력했습니다. 사실 의학사 역시 사람들이 만들어간 역사이기 때문에 그 뒷얘기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비록 제너·파스퇴르 같은 슈퍼스타가 드물게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예병일씨는 의학사란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역사로 본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너가 종두법을 발견하기 전, 중국에 존재했던 그보다 원시적인 인두접종법을 유럽에 소개한 문태규 부인과 티모니 의사를 다룬 뒷얘기도 잊지 않는 등 하나의 위대한 발견자 뒤에 가려진 수많은 사람들의 존재를 밝혔다.

“의학사를 보면 우연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너가 종두법을 발견하게 된 계기도 아랫동네 우유 짜는 일을 하는 여자들에게 들은 신기한 얘기 덕택입니다. 제너는 이 우연에서 필연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우연이 우연으로 그칠 때 의학사는 정체하고 우연이 필연으로 바뀔 때 발전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그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시킨 대체의학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지킨다. 이 책이 다루는 의학사 뒷얘기 자체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진보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달한 마음으로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가.

적성과 맞지 않는 의과대학을 다니느라 고민이 많았던 그는 애초 생화학 분야의 노벨상을 타겠다는 생각으로 의대 진학을 결심했다. 지금은 그때만큼 패기는 없어졌다. 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생화학교실 전임강사로 있는 예병일씨는 “1급은 아니고 2급 정도의 우표수집광”이다. 이 책의 삽화로 실린 수많은 기념우표를 통해 그가 해온 ‘의학’ 우표수집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일도 또 다른 재미다. 앞으로 이 책과 비슷한 형식으로 노벨의학상의 숨은 뒷이야기나 자신의 전공분야와 관련 있는 DNA의 역사를 다룬 일반인 대상의 의학서도 쓸 계획이다. —김연수 기자

## 80년대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던가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펴낸 김원씨



아라비아 속담에 ‘사람은 그의 아버지보다 자신의 시대를 더 많이 닮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말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이들이 있다. 이른바 ‘386세대’ 혹은 ‘모래시계 세대’가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광기의 80년대에 순교자적 열정으로 거리를 메웠고, 개인의 사소한 감정은 유보한 채 혁명의 에너지를 분출시키면서 인간해방의 내일을 꿈꾸었다.

하지만 유토피아적 열정이 싸늘히 식어버린 90년대에 그들에 대한 기억은 잊혀졌거나 잊혀지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서 낭만적인 소도구로 전락하거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로 떠돌고 있다. 그때 그 거리에서 무엇을 했던가. 그들은 왜 잊혀지고 있는가.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이후)을 펴낸 김원씨(30)의 문제의식이다.

“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운동엘리트나 이념노선을 밝히는 데 치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8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총체적 삶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적 경험과 삶의 결을 통해 80년대 세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이 책은 80년대를 살았던 17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학생운동의 성격과 쇠퇴과정을 역동적으로 추적한다. 80년대 학생운동은 ‘상상된 민중공동체’를 지향했지만 운동 엘리트들의 관료화와 대중의 일상에 뿌리내리지 못한 대학의 하위문화 때문에 결국 대중정치적 실패를 가져왔다고 입증한다.

“80년대의 대학문화, 특히 운동권 문화는 다른 집단과 계급에서 발견되기 어려운 독특한 감성과 생활양식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지식인으로서의 자기부정성, 노동자·민중에 대한 애정과 헌신, 제도화된 권위와 권력에

대한 부정 등의 가치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술자리와 과방 등의 공간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창출했습니다.”

그는 80년대 학생운동의 위기는 민중적 공동체의 변질과 그 조직형태인 학생회의 관료화, 부르주아적 조직 시스템의 형성 등으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운동문화로 상징되는 하위문화는 대중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한 채 학생대중을 대상화시켰다고 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80년대 정신의 유효성에 대해 신뢰한다.

“몇몇 언론매체에서 80년대를 신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세대 가운데 주류사회로 흡수된 소수를 통해 그 세대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80년대 정신을 심각하게 왜곡한다고 봅니다. 개인적 삶의 조건에 따라 다양하지만, 운동의 언저리를 배회하면서 여전히 80년대적 문제의식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90년대는 민중지향성과 문화적 양식을 현재 조건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는 현재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이다. 테마는 식민지시대와 해방정국의 노동계급 형성과정.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상적 경험과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근대적 노동계급으로

탄생했는지 밝힐 계획이다.

—박천홍 기자

